

#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 차사본풀이

옛날 옛적 처서(差使)님 난산국 본산국 신노립서. 옛날 옛적에 낳은 동경국 버물왕 아덜덜<sup>1)</sup> 삼삼은 구 아흡성제 사옵데다. 우이로도<sup>2)</sup> 삼형제 명(命)이단단(短短) 즐안 헤여.<sup>3)</sup> 알로도 삼형제 명이단단 즐안 헤영. 가운데 삼형제 남앗구나.

동계낭은중절(東觀音殷在寺) 서계낭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南觀) 상상(山上) 메양<sup>4)</sup> 올라 한동절 부처 지컨<sup>5)</sup> 대서님이 소서(小師) 꿈에 선몽(現夢) 허영.

“소서야, 소서야. 너는 무신 잠을<sup>6)</sup> 그리 자느냐? 날랑 죽건 남천바리<sup>7)</sup> 들영 불화식을 시경<sup>8)</sup> 옥황더레 지올려두고 널랑 대서(大使)로 들어상<sup>9)</sup> 동경국 강 버물왕 아덜덜 소서로 드려 세우라.”

대서님은 죽엇구나. 남천바리 들영 불화식을 시경 옥황더레 지올려두고. 소서는 대서 행착<sup>10)</sup> 출려간다<sup>11)</sup>. 헛침 질러<sup>12)</sup> 굴송낙<sup>13)</sup> 두침 질러<sup>14)</sup> 비랑잠상(長衫) 백파염주(百八念珠) 목에 걸엇구나.

인간땅더레 소곡소곡 도노리난,

“동경국땅 버물왕 아덜덜 너히들 낳기는 잘 낳구나만은 열다섯 십오세 소고전명이(四苦定命) 메긴<sup>15)</sup> 듯 허는구나.”

“죽을 점(占)은 허민 살 점은 못헉네까?”

“이 애기덜 살리컨덜랑 데공단고칼<sup>16)</sup> 드령 머리 삭발허영 우리 절간법당에 오랑 열다섯 십오세 소고전명 잇영<sup>17)</sup> 갑서.”

이 아기덜 머리삭발허영 동경국 버물왕이 아덜덜,

“너네들 집 베깃디<sup>18)</sup> 나가민 고생이로구나.”

- 
- 1) 아덜덜: 아들들.
  - 2) 우이로도: 위로도.
  - 3) 즐안 헤연: 짧고 하여서.
  - 4) 메양: 늘.
  - 5) 지컨: 지킨.
  - 6) 무신 잠을: 무슨 잠을.
  - 7) 남천바리: 나무 천 바리.
  - 8) 불화식을 시경: 화장을 해서.
  - 9) 들어상: 들어서서.
  - 10) 대서 행착: 대서님 형세.
  - 11) 출려간다: 차려간다.
  - 12) 헛침 질러: 고깔 꼭지의 모양.
  - 13) 굴송낙: 고깔.
  - 14) 두침 질러: 장삼 소맷자락의 모양 표현.
  - 15) 메기: 아무 것도 없거나, 하던 것이 '끝'임을 나타내는 말.
  - 16) 데동단고칼: 중의 머리를 깎는 칼이라 함.
  - 17) 잇영: 이어서.
  - 18) 베깃디: 밖에.

붉은비단 푸른비단 노린비단<sup>19)</sup> 시필씩<sup>20)</sup> 내여주었구나. 은깃(銀器)짐도 내여주고 늦기짐도 내여주난, 절간법당 들어간다. 큰성님은<sup>21)</sup> 복을 친다. 들쨍아시<sup>22)</sup> 바라 친다. 죽은아신<sup>23)</sup> 염불(念佛)공덕(功德) 허엿구나.

어서 이제랑 상단 중단 하단 원불(願佛)하단 보난, 절도 파락(擺落) 뒤편 뒹고, 당도 파락 뒹게 뒹난, 인간땅에 도노령 시권제삼문(勸濟三文) 받앙 오렌 허영.

시권제삼문 받으레 덩기단<sup>24)</sup> 보난, 해는 열락서산(連落西山) 다 지었구나. 저 달(月)은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히고 우리 동넨 비추건만은, 우린, 우리 동네 우리 부모님 못 보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허난 견딜 수가 엿엇구나.

“어서, 이제 대서님신디 강<sup>25)</sup> 어머니 아버지 얼굴 상봉 시겨주렌 허기가 어떻허 파?”

“결랑 기영 허게.”

대서님신디 강,

“대서님아, 대서님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얼굴 상봉 허영 오쿠다.”

“서른 애기덜아, 가지 말라.”

아멩헤도<sup>26)</sup> 갓당 오쿠덴 허난, 게결랑 가기랑 가라만은 과양땅이랑 들지 말앙 가라.

“결랑 기영 헉서.”

대서님이 은깃짐도 내어준다. 늦기짐도 내어준다. 비단짐도 내어주었구나. 절간법당 하직한다. 부처님전 하직한다.

소곡소곡 내려오단 보난 과양땅이 잇엇구나. 과양생이 지집년 네 귀에 풍경 돌런<sup>27)</sup> 잘 살암구나. 앞더레는<sup>28)</sup> 흐 자국을 노민<sup>29)</sup> 뒤터레는<sup>30)</sup> 두 자국을 놓안 배고프고 시장허영 갈 수가 엿엇구나.

광양생이 집더레 들어가난, 어떻헤연 중이, 서이씩<sup>31)</sup> 우리집더레 들어왓시니? 귀 중들 귀 잡으멍 내훈둘리렌<sup>32)</sup> 허난,

“우리도 본래 중이 아닙네다.”

동경국땅 버물왕이 아들인디 열다섯 십오세 소고전명이 메길 듯 헤여근에, 멩(命)광<sup>33)</sup> 복(福)을 잇어 주고 오는 길입니덴 허난, 아이고, 버물왕의 아들이엔 허난 나중

19) 노린비단: 노란비단.

20) 시 필씩: 세 필씩.

21) 큰성님은: 큰형님은.

22) 들쨍아시: 둘째동생.

23) 죽은아신: 작은동생은.

24) 덩기단: 다니다가.

25) 강: 가서.

26) 아멩헤도: 아무래도.

27) 돌런: 달아서.

28) 앞더레는: 앞쪽으로는.

29) 노민: 놓으면.

30) 뒤터레는: 뒤쪽으로는.

31) 서이씩: 세 명이나.

32) 내훈둘리렌: 휘두르라고.

33) 멩(命)광: 명과.

에 무신<sup>34)</sup> 일이나 생기민 어떻허코 헐. 식은밥에 물즙이<sup>35)</sup> 내어준다. 손가락 세 개  
콧박세기에<sup>36)</sup> 걸천<sup>37)</sup> 내어주난, 그거 헐 두 손가락씩 먹으난 정신이 낫구나.

시장기가 몰렸구나.<sup>38)</sup> 아이고, 놈이 거, 공(空) 거 먹으민 등 걸리곡 목 걸리는 법  
이라. 은기짐도 부러논다. 늦기짐도 부러논다. 비단짐도 부러놓앗구나. 멩지비단 석  
자씩 아홉 자를 끊어 주난, 과양생이 지집년 천하아래 거부제(巨富者)로 살아도 요런  
비단은 아니 보아났구나. 은기짐에 탐이 나는구나. 늦기짐에 탐이 나는구나. 비단짐에  
탐이 나는구나. 엇인<sup>39)</sup> 영강<sup>40)</sup> 부러간다. 열두 가지 구에반상<sup>41)</sup> 출려 논다.<sup>42)</sup>

“요 술 헐 잔<sup>43)</sup> 먹으라. 요 술 헐잔 먹으민 천년이나 산다. 만년이나 산다.”

헐 잔 술을 권허난, 아니 먹어난 거 먹으난 고암약주<sup>44)</sup> 한약주 열약주가 뉘연. 동  
서더레 박아지엇구나. 요때를 놓칠세라. 과양생이 지집년 삼년 묵은 곤장<sup>45)</sup> 물에 육  
년 묵은 찹지름<sup>46)</sup> 수왕수왕 꺾와단<sup>47)</sup> 웬귀로 느단귀레,<sup>48)</sup> 느단귀로 웬귀더레 질어부  
난<sup>49)</sup> 얼음산에 구름 녹듯, 구름산에 얼음 녹듯 죽엇구나.

죽어부난, 과양생이 지집년 놈신디 골민<sup>50)</sup> 나중에 탄로가 나고 가맹이덜에<sup>51)</sup> 푹푹  
몽크려단<sup>52)</sup> 돌 돌아메멍 주천강(酒泉江) 연훼못(蓮花池)더레 다 들이쳐 불엇구나. 주  
천강 연훼못디 돌 돌아메멍 들이쳐부난,

뒗날은 아멩헤도 시체나 떠신가 안 떠신가 아무 기척이 엇인가 간 보젠 가난, 물  
(馬) 물 먹이레<sup>53)</sup> 과양생이 가난, 삼석백이 고장(花)이<sup>54)</sup> 잇엇구나. 다시 과양생이 지  
집년 연세답<sup>55)</sup> 허는 핑계 허연 간 보난, 삼석백이 고장이 잇엇구나.

나에게 테운<sup>56)</sup> 고장이건 나 앞더레 오렌. 물막게로<sup>57)</sup> 종긱종긱 동겨가난,<sup>58)</sup> 종긱종  
긱 오라간다. 푹푹 꺾어 오란, 집이 오난 하도 고와지난 앞문전(前門前)에 흐나 쪼

34) 무신: 무슨.

35) 물즙이: 물에 만 밥.

36) 콧박세기에: 박세기에.

37) 걸천: 걸쳐서.

38) 몰렸구나: 가셨구나.

39) 엇인: 없는.

40) 영강: 아양.

41) 구에반상: 잘 차린 상.

42) 출려 논다: 차려 논다.

43) 헐잔: 한잔.

44) 고암약주: 독한 술이라는 뜻.

45) 곤장: 간장.

46) 찹지름: 참기름.

47) 꺾와단: 꺾서.

48) 웬귀로 느단귀레: 왼 귀로 오른 귀에.

49) 질어부난: 부어버리니.

50) 놈신디 골민: 놈한테 말하면.

51) 가맹이덜에: 가마니에.

52) 몽크려단: 말아서.

53) 먹이레: 먹이려고.

54) 삼석백이 고장이: 3색이 박힌 꽃이.

55) 연세답: 빨래.

56) 테운: 주어진 ‘복을 타고나다’의 ‘타다’의 사동관형사형.

57) 물막게로: 빨래방망이.

58) 동겨가난: 당겨가니.

나.59) 뒷문전(後門前)에 하나 꼽나. 생깃지등에60) 하나 꼽나. 들어갈 때 나갈 때 앞설 작도61) 복히 메었구나.62) 뒷설작도 복히 메었구나. 아이고, 요 꽃은 곱기는 곱다만은 행실이사 낮아지다.63) 박박허게 부변64) 정동아리(靑銅火爐)에 불 탁 짚어불었구나. 동네 청대산이 마고할망 불 담으레 왔구나. 불 담으레 오난, 불은 해천 보난 불은 하나도 엇고 삼석백이 구실이65) 잇었구나.

“애기 어멍아, 불은 엇고 구실만 잇영 봉강66) 가노렌.”

허난,

“이 할망, 저 할망 어뎡헌 할망이라. 놈이 정동아리에서 구실 봉그민67) 쥐동 가사주. 앓영 간덴 현 말이 무신 말이니.”

복허게 빼앗안 요레 노민68) 요레 시 방울69) 도로록, 저레 노민 저레 시 방울 도로록 입더레 노난 오장육부더레 솔솔허게 다 들어가 불었구나.

솔솔허게 다 들어가 부난, 그게 포테(胞胎)가 뉘언. 아방 몸엔 석 덜 열흘 어멍 몸에 석 덜 열흘 아호 열덜 감아 준삭(準朔) 찬, 낳는 건 보난 아덜 삼형제가 솟아났구나.

이 애기덜 노는 건 글소리, 자는 건 활소리, 천하문장(天下文章) 지하문장(地下文章) 뉘었구나. 서울 상시관(上試官)이 과걸 보레 가난, 큰아덜은 문성급제(文成及第) 과거 보레 간다. 둘째 아덜 장원급제(壯元) 과거보레 간다. 죽은아덜 팔도(八道) 올라 도자원 과거 보레 올랐구나. 청일산(靑日傘)도 내여준다. 백리산(白日傘)도 내여준다. 삼만 관속(三萬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와라치락 와라치락 내여 주어 가는구나.

아이고, 내여 주난, 이젠 과거 보레 오논디 과양생이 지집년 높은 동산에 올라간 아이고, 우리 애기들은 어느 문섭에나 강 산 울엄신지, 우리 애기덜은 어디로 가시고. 과거 본 저 집이 애기덜 혼날 혼시에70) 목 데맹이71) 확 그차지렌72) 후육만발73) 허단 보난 과양생이네 집더레 과거문안(科擧文案)이오.

과양생이 지집년 우리 애기덜신디 죽으렌 욱 헤여졌구나. 이 노릇을 어뎡허민 조으코. 갈라정74) 춤 바끄민75) 나 앞더레 든덴 헨게. 이 노릇을 어뎡허민 조으코. 산천에

59) 하나 꼽나: 하나 꼽는구나.

60) 생깃지등에: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등에.

61) 앞설작도: 앞 살쩍. ‘살쩍’은 빵의 귀 앞에 난 머리털을 말함.

62) 복히 메었구나: 인정사정 없이 뽑았구나.

63) 행실이사 낮아지다: 행실이 낮아지다.

64) 부변: 비벼서.

65) 구실: 구슬.

66) 봉강: 주워서.

67) 봉그민: 주웠으면.

68) 노민: 놓으면.

69) 시 방울: 세 방울.

70) 혼날 혼시에: 한날 한시에.

71) 목 데맹이: 목 머리.

72) 그차지렌: 베어지라고.

73) 후육만발: 욱을 하다.

74) 갈라정: 누워서.

75) 춤 바끄민: 침 뱉으면.

서 태운 애기덜 터신, 지신(地神)에서 길르난<sup>76)</sup> 문전제(門前祭)나 허주. 문전제 지내 언 아들 삼형제 절 삼배(三拜) 허난 그만 소곡소곡 다 거꾸라 지엇구나. 소곡소곡 거꾸러 지난 문<sup>77)</sup> 죽엇구나. 앞밭디도<sup>78)</sup> 출병막<sup>79)</sup> 뒷밭디도 출병막 윽밭디도<sup>80)</sup> 출병막, 출병막을 헤여두고. 짐치고을 짐치원님 송서(訟事) 절체<sup>81)</sup> 잘 헌덴 허난,

“나 송서절체도 허여줍서.”

송서 절첼 헤연. 못 허난, 높은 동산 올라간

“개 곁은 짐치원님아. 쉼 곁은<sup>82)</sup> 짐치원님아. 송서 절체 잘 헌덴 허연게. 나 절첼 무사 아니 허여 줍수과?”

송서 절첼 아니 허난 후육만발 허엇구나. 저년신디 저 욱 들영 어떻 살건고. 원님 아니 살젠 허난, 강파두가 허는 말이,

“이 마을에<sup>83)</sup> 똑똑허고 역력헌<sup>84)</sup> 강림이 훈 아홉 설부터 장 안내 장 베깃디<sup>85)</sup> 아홉 각시 여례덱(十八) 기생첩 각시 행 살아도 싸움엇이 사는 강림이, 똑똑헌 강림이, 역력헌 강림이. 사흘 낮밤 상관장(上官場)에 꺨(闕)을 메영, 너 저승 강 염례왕님을 청해 오겠느냐? 여기서 장 안내 목심을<sup>86)</sup> 바치겠느냐? 행, 강 염례왕 청행<sup>87)</sup> 오켄 허걸랑 그때랑 송서 절첼 헉서.”

걸랑 기영 허렌 허연. 강림인, 사흘 낮밤 상관장에 꺨을 메겼구나.

“너 저싱 강<sup>88)</sup> 염례왕을 청행 오겠느냐? 이싱서<sup>89)</sup> 장 안내 목심을 바치겠느냐?”

강림인 7만히<sup>90)</sup> 생각허영 보난, 강림이 큰각시 열여덱에 장게 간 각시만 각시만 연영 덩기명<sup>91)</sup> 큰각시 이때꼬지 안 보살피난 큰각시 올린 췌나<sup>92)</sup> 뉘는가? 허연 잘못 허고렌 곱아똥<sup>93)</sup> 죽어도 죽자 헨.

“가당 죽어도 저싱 강 염례대왕 청행 오것습네다.”

강림이 성방청(城房廳)에 들어 강,

“날 살립서.”

“난 모른다.”

---

76) 길르난: 키우니.

77) 문: 모두.

78) 앞밭디도: 앞밭에도.

79) 출병막: 가매장.

80) 윽밭디도: 옆밭에도.

81) 절체: 처리.

82) 쉼 곁은: 쇠 곁은.

83) 마을에: 마을에.

84) 역력헌: 용감한.

85) 베깃디: 밖에.

86) 목심을: 목숨을.

87) 청행: 청해서.

88) 저싱 강: 저승 가서.

89) 이싱서: 이승에서.

90) 7만히: 가만히.

91) 덩기명: 다니면서.

92) 췌나: 죄나.

93) 곱아똥: 말해두고.

이방청(吏房廳)에 들어 강,

“날 살립서.”

“난 모른다.”

삼만관속 육방하인

“날 살립서.”

“난 모른다.”

강림이 살릴 자 엇엇구나. 어디 가코. 강림이 큰각시 좃아 강 보난, 굴묵낭 방에  
에<sup>94</sup>) 도에낭<sup>95</sup>) 절구에 이어동동 방에를 지엄구나. 강림이 들어 가가난,

“저 올레에 가시 걷어십디가? 정살낭을<sup>96</sup>) 앓아십디가?”

그말 저말 대답 안허연 방 안에 들어간 보난, 금상(金像)이불 원앙(鴛鴦)이불 잣베  
게 정동아리 허연. 으망지고<sup>97</sup>) 깨끗허고 얹전허게 헤영 살암구나.

옛날은 훌어멍 살럼은<sup>98</sup>) 정동아리 허여놓고, ㅋ컬이<sup>99</sup>) 으망지게 잘살고, 훌아방은  
혼자 살민 동정에<sup>100</sup>) 굴테가<sup>101</sup>) 놓고<sup>102</sup>) 거죽문에 웨돌처기 돌양<sup>103</sup>) 사는법. 훌아방  
은 혼자 살 수 엇고, 훌어멍은 옛날부터 혼자 살아도 으망지고 깨끗허고 잘사는 법이  
뉘엇우다.

강림이 큰각시 아멩헤도 남인 가정이고 서방 아니 얻영 가난, 강림이허고 큰각신  
점심 상 들어가난, 비세(悲鳥)굴이<sup>104</sup>) 울엄구나.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그만씩 헌 말 글은 것에<sup>105</sup>) 경<sup>106</sup>) 읍데가. 여자엔  
허는 건 산 앞더레 돌아산 소피보민 치메깍 젓는 줄 모르는 건 여자의 좁은 속절로  
저 올레에 가실 걷어 십데가. 정살낭을 걷어 십데가. 영 헌건, 오렌만이 완젠 그 말이  
우다.”

허난,

“그 말이 아니라. 사흘 낮적 상관정에 걸을 메기난 저싱 강 염레왕을 청행 오겠느  
냐? 이싱서 목심을 바치겠느냐? 영허난, 당신신디 열여덱에 시집 장계 간 이때꼬지  
잘못 허엇젠<sup>107</sup>) 말도 못허고 영 허연. 잘못 헛젠 말이라도 굴아뵤<sup>108</sup>) 죽어도 죽젠 오  
랏고렌.”

허난,

94) 굴묵낭 방에에: 느티나무 방아에.

95) 도에낭: 복숭아 나무.

96) 정살낭을: 정낭을.

97) 으망지고: 야무지고.

98) 살럼은: 살림은.

99) ㅋ컬이: 깨끗이.

100) 동정에: 저고리의 깃 부분.

101) 굴테가: 좀처럼 닦아지지 않게 붙어 있는 때.

102) 놓고: 묻고.

103) 돌양: 달아서.

104) 굴이: 같이. 처럼.

105) 글은 것에: 말한 것에.

106) 경: 그렇게.

107) 허엇젠: 하였다고.

108) 굴아뵤: 말해두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문 안내도 아홉 각시 문 베끼디도 아홉 각시, 기생첩 이구 십팔 여례뎌 아홉 각시 행<sup>109)</sup> 살충은<sup>110)</sup> 알고 저싱은 갈 중 모름디가? 저싱 가젠 허민 저싱 문셀(文書) 내여놉서.”

저싱 문세 내여논 건 보난, 힌 종이에 검은 글을 썩 짓구나.

“훈 일 알고 두 일 모른 어른아. 이것은 인간 글입네다. 이 글 앓양<sup>111)</sup> 검은 머리가 백발이 뉘여도 저싱 못 갑네다.”

“저싱 글은 어떤 글이 뉘겠느냐?”

붉은 종이에 힌 글이 뉘네다. 사름은 죽으민 붉은 토맹지<sup>112)</sup> 석자 시치에 힌 글 베기는 법. 이제도 맹전법(銘旌法)을 마련허영 저싱 가는 법입네다.

강림인 동안(東軒)마당 들어간

“아이고, 원님아, 원님아. 이건 인간 글이주. 저싱 글 아니엔 험데다.”

“누계가 곤더냐?”<sup>113)</sup>

“소인의 계집이우다.”

강님이 큰각시는 역시 똑똑하고 역력허구나. 붉은 토맹지에 석자 시치에 힌(白) 글은 엇엇구나. 계란 한알 까 놓안. 획획 젖언 붓으로 획획 썩. 밑물<sup>114)</sup> 뿌런 허난 힌 글이 뉘엇구나.

강님이 동안마당 적베지<sup>115)</sup> 바깥 오는 세에<sup>116)</sup> 강님이 큰각신 조왕할망<sup>117)</sup> 꿈에 선 몽허엇구나. 너히 낭군 살아서도 호서(好事)로구나. 죽영 가도 호서난 저싱 입성(衣服) 허여주라.

저싱 입성 남방사주(藍紡沙紬) 봉에말바지<sup>118)</sup> 북방사주(白紡沙紬) 저고리 백농(白綾) 보선<sup>119)</sup> 웨코 접안<sup>120)</sup> 종이 반들 낙곡지로<sup>121)</sup> 돌을<sup>122)</sup> 메어 금산비산 한두루막<sup>123)</sup> 운문대단(雲紋大緞) 안 받치고, 홍포관대(紅袍冠帶) 조심띠 허우레비 허튼끈, 소공단에 제웅끈, 제웅단에 불림끈 윈 풀을<sup>124)</sup> 졸라 간다. 윈 다리를 묶어간다. 관장페는 등에 지고 적베지는 콤에<sup>125)</sup> 콤고 홍사줄은<sup>126)</sup> 윗이<sup>127)</sup> 차고 저싱 질이 멀다더니 창문 베

109) 행: 해서.

110) 살충은: 살줄은.

111) 앓양: 갓고서.

112) 토맹지: 제주에서 짠 명주로 무게도 있고 독특했다고 함.

113) 곤더냐: 말하더냐.

114) 밑물<sup>114)</sup>: 메밀가루.

115) 적베지: 제주 무속에서 ‘명왕(名王)’의 명을 기록한 문서.

116) 바깥 오는 세에: 바꾸고 오는 사이에.

117) 조왕할망: 부역을 지키는 신(神).

118) 봉에말바지: 솜을 넣어 만든 바지.

119) 보선: 버선.

120) 웨코 접안: 코를 접어서.

121) 낙곡지로: 백지(白紙)로.

122) 돌을: 들메끈을.

123) 한두루막: 두루마기.

124) 윈 풀을: 윈 팔을.

125) 콤에: 품에.

126) 홍사줄은: 죄인을 묶는 줄은.

127) 윗이: 옆에.

꺾<sup>128</sup>) 저싱이로구나. 강림이 큰각시 정심을<sup>129</sup> 허여 주는디 백시리를<sup>130</sup> 지엿구나. 훈 징은<sup>131</sup> 문전하르바님 나시오.<sup>132</sup> 훈 징은 조왕할망 나시오. 훈 징은 강림이 나시오. 시리를 지엿 정심을 출려<sup>133</sup>) 노난,

“저싱 갈 시간이 뉘엿우다.”

저싱더레 신 돌려난, 창문 베깃으로 신 돌려 노난 저싱이로구나.

강림이는 저싱더레 가는 질에, 저 먼정 나사난, 어떻헌 할망이 앙글조침<sup>134</sup>) 걸엄구나. 아이고, 여자엔 헌 건 꿈에만 시꾸와도<sup>135</sup>) 새물(邪物)이엔 허건만은, 어떻헌 할망이 저싱더레 가는디, 저싱 질에 질을 갈람신고.

강림이가 돌아가민 할마님도 돌아간다. 강림이가 걸어가민 할마님도 걸어간다. 일읍 요덱(七十八) 공걸음질 근당(近當)허난 할마님이 숨비기소리 허멍 쉬엄구나. 강림인 필아곡절(必有曲折)허다. 백 보 베깃디서<sup>136</sup>) 절 삼베를 헤여 놓고 통성명을 허난 조왕할망 이라낫구나.

너히 각시네 조왕할마님인디 너 행실은 귀썰허나 저싱더레 질 인도허레 나왓노렌 허난,

“아이고, 조왕할마님 엿이민 화덕진거(火德辰居) 날 우려가 잇이난 훈저<sup>137</sup>) 들어갑서.”

“저싱 질을 7리쳐동<sup>138</sup>) 가마. 올로<sup>139</sup>) 저레 가가민 전일월 전병서(前日月 前兵使)도 들어가는 질, 신일월 신병서(新日月 新兵使)도 들어가는 질이여.”

원양감서(元王監司) 원병서(元兵使), 시왕감서(十王監司) 신병서(新兵使), 어서(御使) 두서 짐치원네 범골은<sup>140</sup>) 스천대왕(四千大王)이 들어가는 질이로구나.

제일전(第一轉)에 진강대왕(秦廣大王) 들어가는 질, 초강대왕(初江大王)이 들어가는 질, 송제대왕(宋宋大王)이 들어가는 질, 오관대왕(伍官大王) 들어가는 질, 다섯 염레대왕(閻羅大王)이 들어가는 질, 요섯 번성대왕(變成大王) 들어가는 질, 일곱은 태선대왕(泰山大王)이 들어가는 질, 요덱 평등대왕(平等大王), 아홉 두시, 열 십전대왕(十轉大王), 지장(地藏) 생불(生佛) 좌두불(左頭佛) 열다섯 십오동저(十五童子)판관(判官)이 들어가는 질, 예레섯 십육소제(十六使者)가 들어가는 질, 천왕처서(天王差使)가 들어가는 질, 지왕처서(地王差使)가 들어가는 질, 인왕처서(仁王差使)가 들어가는 질, 옥황처서(玉皇差使) 금부도서(禁府都事) 저싱처서 이원서제 이싱처서 강림처서 들어갈 질은 보

128) 베겻: 밖.

129) 정심을: 점심을.

130) 백시리를: 하얀 백설기 떡.

131) 훈 징은: 한 층은.

132) 나시오: 몯시오.

133) 출려: 차려.

134) 앙글조침: 엉거주춤.

135) 시꾸와도: 나타나도. 보아도.

136) 베깃디서: 밖에서.

137) 훈저: 어서 빨리.

138) 7리쳐동: 가르쳐두고.

139) 올로: 여기로.

140) 범골은: 범(虎)같은.



난, 게염지<sup>141)</sup> 웬뿔만이<sup>142)</sup> 현 질이로구나.

들어가단 바려 보난, 질토레비<sup>143)</sup> 질감관(道感官) 질을 닦으단 베고프고 시장허연 누웠구나. 이싱 동간(同官)도 동간이여 저싱 동간도 동간이여. 팔즈 곳인 건<sup>144)</sup> 유학 동저로구나. 일어난 이 정심 먹음센 허연 떡시리를 주난 먹언. 정신 출령<sup>145)</sup> 보난 인간 사름이 왔구나.

“어명헨 인간 사름이 이 고단에<sup>146)</sup> 당헨데가?”

“염례대왕 잡히레 오랏우다.”

“염례대왕을 어명헨 잡힙네까?”

경 헤도 잡히레 왔우덴 허난, 놉이 거 공 거 먹으민<sup>147)</sup> 등 걸리고 목 걸리는 법이라. 강림이 훗적삼<sup>148)</sup> 입엇건 벗읍서. 저싱 보. 강림이 저싱 보. 삼시 번을 불르난, 저싱 초군문(初軍門)에 들어가지엇구나.

초군문에 들어가난, 강림이 초군문을 잡안 사시난, 염례왕이 청일산을 들러타고 벅리산을 들러타고 삼만관속 육방하인 들러차, 와라치라 와라치라 내려온다.

앞이 온 가마도 염례왕이 탄 가마도 아니로구나. 둘첻 가마도 아니고, 셋체 넷체 다섯체 염례대왕 탄 가마로구나. 우웬골은<sup>149)</sup> 소리 벵낙지듯 하메를 허난,

야, 이때꼬지 덩겨도<sup>150)</sup> 나 하메(下馬)를 아니 시겨봐신디<sup>151)</sup> 저, 하메 시기는 자, 소문절박(四門切迫) 허렌 허난. 염례대왕님이 부에가<sup>152)</sup> 난, 소문절박 허렌 허난, 강림이 벌써 가멧부출 우이 올라완. 염례대왕님 소문절박을 브드득이<sup>153)</sup> 돌랐구나.<sup>154)</sup>

“아이고, 혼 베코만<sup>155)</sup> 누겨도라.”<sup>156)</sup>

“염례대왕님, 나도 이 ㄱ지<sup>157)</sup> 오젠 허난 인정<sup>158)</sup> 쓰멍 오랏우다. 소정<sup>159)</sup> 쓰멍 오랏우다. 인정 줍서. 소정 줍서.”

아이고, 인정 걸 돈 엇엇구나. 소정 걸 돈 엇엇구나. 염례대왕님신디 열두폭 관디(冠帶) 북북<sup>160)</sup> 칫엉<sup>161)</sup> 인정 걸엉 소문절박 풀렸우다.

---

141) 게염지: 개미.

142) 웬뿔만이: 왼쪽 뿔만이.

143) 질토레비: 길을 보수하는 사람.

144) 팔즈 곳인 건: 팔자 좋지 않은 것은.

145) 출령: 차려서.

146) 고단에: 고장에. 곳에.

147) 먹으민: 먹으면.

148) 훗적삼: 적삼. 죽은 후 혼(魂)을 부를 때 적삼을 들고 부름.

149) 우웬골은: 우레같은.

150) 덩겨도: 다녀도.

151) 시겨봐신디: 시켜봤는데.

152) 부에가: 화가.

153) 브드득이: 굳은 것을 이로 씹을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154) 돌랐구나: 돌렸구나.

155) 혼 베코만: 밧줄의 한 고만.

156) 누겨도라: 늦추어다오.

157) 이 ㄱ지: 여기까지.

158) 인정: 재화(財貨)를 뜻함.

159) 소정: 인정에 맞춘 조운구.

160) 북북: 박박.

우리 인간 백성덜도, 인간 아기 악심(惡心) 병금전 치메꿈 제우멍 허리꿈 제우멍 병금전 저싱 갈 땀 열손 과짜 폐왕<sup>162)</sup> 단돈 십원 못 앗앙<sup>163)</sup> 가난 인정 걸 돈 엇엇구나. 소정 걸 돈 엇엇구나. 애기덜 착실허고 얌전허고 영허난 부모님 왕싱극락(往生極樂) 험셴. 삼처서(三差使) 관장님 인정 안내영 소문절박 풀려줍서. 손에 수갑 풀립서. 발에 사주 풀립서. 목 죽은 행처칼 소문절박 풀려줍셴 헤연. 삼처서 관장에 강림 처서에 인정 걸어난 법으로 염례대왕님도 강님이 인정 걸어난 법.

우리 인간덜도 저싱 가젠 허민 강님이신디 인정 걸영 소문절박 풀려근 저싱 질더레 가는 법이라. 오늘 처서 난수생 신평염수다.

강님이 염례대왕 소문절박 풀런. 흐 베코 누겨 주난,

“주부장제칩 단뜰애기 전세남<sup>164)</sup> 반앙 가키여.”

“결랑 기영 험서.”

아렛넉 조복장제 단뜰애기 전세남 허는디 염례대왕님은, 큰심방 오리정 신청괘<sup>165)</sup> 허염구나. 시왕드리<sup>166)</sup> 놓앗구나. 별드리<sup>167)</sup> 놓앗구나. 영기(令旗) 몽기 들러반앙 초편<sup>168)</sup> 두편 제 삼편으로 염라대왕님 시왕드리 발아들영<sup>169)</sup> 큰대(巨竹) 꼭지로 허연. 안상시더레 들어가난에, 강님인 저 올레에 완 사도<sup>170)</sup> 어느 누게 술 혼잔,<sup>171)</sup> 감주 혼잔 먹으레 시라<sup>172)</sup> 아니 허난 큰심방 소문절박 시겼구나.

큰심방 소문절박 시기난 연당(靈延祭棚) 아래 신소미(神小巫) 악거리라 닷거리라. 어제 그지갯날 염례대왕 청허레 간 강님처서 살려옵셴 헤연.

옛날은 당클만 메연.<sup>173)</sup> 옷상만 출령 헤엿인디, 큰심방 소문절박 허난 아래 소젯상(使者床) 출려놓고<sup>174)</sup> 나까도전침<sup>175)</sup> 허연 올리고, 세변군중(世變軍衆) 지삭안<sup>176)</sup> 나까도전 동실동실 올린. 각발분식(各班分食) 허연 세변군중 지삭이난 큰심방도 살아온 법 잇입네다.

강님이 안으로 들어완 보난, 염례대왕님 큰대 꼭지로 허연 포리<sup>177)</sup> 몸에 환생허연 잇엇구나. 거미 몸에 환생허연 간 거미줄로 확허게 소문절박 허난,

“흐 베코만 누겨도라.”

161) 찢영: 찢어서.

162) 과짜 폐왕: 손가락을 짝 폐워서.

163) 못 앗앙: 갖지 못해서.

164) 전세남: 앓았을 때 생명을 살려주십사고 비는 곳.

165) 오리정 신청괘: 청신(請神)하여 들이는 제차명(祭次名).

166) 시왕드리: 시왕다리.

167) 별드리: 별다리.

168) 초편: 처음 판.

169) 발아들영: 밟아서 들어서면서.

170) 완 사도: 와서 서도.

171) 혼잔: 한잔.

172) 시라: 있어라.

173) 당클만 메연: 당클만 매여서. 큰굿 때의 4당클(祭棚) 중 시왕차지의 당클.

174) 출려놓고: 차려놓고.

175) 나까도전침: 시루떡을 들어 춤추며 올리는 제차(祭次).

176) 지삭안: 지삭아서. 달래어서. 제상 위의 각종 제물을 조금씩 떠서 던짐.

177) 포리: 파리.

“아이고, 이제랑 인간더레 걸읍서.”

“나 모리듯날 스오시<sup>178)</sup> 뒤민 가키여.”

앞이랑 놀릴<sup>179)</sup> 용(勇)제 써준다. 뒤랑 임금 왕제 써준다. 올땐 어땡어땡 나 자유로  
왔주만은 가는 질을 모르쿠다. 백강생일<sup>180)</sup> 내어준다. 백강생이 가는 딜로만<sup>181)</sup> 가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앞이랑 놀림 왕제 뒤랑 임금 왕제 써 주엇구나. 백강생이 가는 길로 가단보난, 백강  
생이가 행기소가 잇이난 짚디 짚은 행기소에 빠지난 천지소가 뒤엇구나.

“아이고, 나 저 백강생이 일러불민<sup>182)</sup> 저싱도 이싱도 못 강 어땡허리.”

헌디<sup>183)</sup> 백강생이 가는 디레 천지소에 빠지엇구나. 천지소더레 빠지난, 저싱 간 사  
흘 살안 완 보난 인간인 삼 년이 뉘언 쳇 식겻날이<sup>184)</sup> 근당이<sup>185)</sup> 뒤엇구나. 아이고,  
조그만 헌디 초가막살이 불이 베롱허게<sup>186)</sup> 싸 지엇구나. 저 집이 강 보주 허연.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아이고, 누게네 집 산디 몰라도 문 열렌 허난, 강님이가 오랏저. 나, 강님이노렌. 이  
문 열렌 허난.

“난 강님이 큰각신디, 강님이건 관디섭을<sup>187)</sup> 내어놉서.”

관디섭을 내어논 건 보난, 바농<sup>188)</sup> 훈쌈<sup>189)</sup> 짚른 건 다 보밀어<sup>190)</sup> 허나 남앗구나.  
옛날은 단(單) 바농 단 아들 믿지 못헌덴 허영 아들 허나 나민, 따시<sup>191)</sup> 허나 벗 붙영  
나는 법 마련헤엿우다.

아이고, 아바진 오명<sup>192)</sup> 누단 흘목<sup>193)</sup> 심영<sup>194)</sup> 허난, 성편(鍼編)은 쟁깁데다. 어머  
님은 오명 웬 흘목<sup>195)</sup> 심으난 윈편(外編)이 쟁깁데다. 형제간덜은 옷 앞섭더레<sup>196)</sup> 앓  
으난<sup>197)</sup> 옷 앞섭이 브름이여.<sup>198)</sup> 족은 각시덜은 서방 얻으멍 몬딱 가부난<sup>199)</sup> 아니 오

178) 모리듯날 스오시: 모레 뒷날 사 오시.

179) 놀릴: 날릴.

180) 백강생일: 하얀 강아지를.

181) 딜로만: 데로만. 곳으로만.

182) 일러불민: 잃어버리면.

183) 헌디: 함께. 같이.

184) 쳇 식겻날: 쳇 제삿날.

185) 근당이: 가까이 오게.

186) 베롱허게: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켜지다.

187) 관디섭을: 관대 자락을.

188) 바농: 바늘.

189) 훈쌈: 한 쌈.

190) 보밀어: 녹이 피어서.

191) 따시: 다시.

192) 오명: 오면서.

193) 누단 흘목: 오른쪽 손목.

194) 심영: 잡아서.

195) 윈 흘목: 왼쪽 손목.

196) 앞섭더레: 옷의 앞자락에.

197) 앓으난: 앓으니.

198) 브름이여: 바람이여.

199) 가부난: 가버리니.

고, 큰각신 산 수절 지킨 거 죽은 수절 못 지키랴 앓앗우다.

“아버지, 나 죽으난 어떤 생각 납데가?”

“설운 애기야, 니 죽으난 무디무디<sup>200)</sup> 생각나라. 무디무디 생각나라. 모든 말은 거 풀영 곱아저라.<sup>201)</sup>

“아버진 살당살당 돌아가시민 왕대(大竹) 막덩이<sup>202)</sup> 방장대에<sup>203)</sup> 시무옷<sup>204)</sup> 알 풀영 입영 ‘아이고 데고’ 삼년 상 공 갓아 드리쿠다.”

“어머님은 나 죽으난 어떤 생각 납데가?”

“설운 애기야, 니 죽으난 가심이<sup>205)</sup> 멉헉해라. 굿인<sup>206)</sup> 말은 감추멍 곱아저라”  
어머닌 안부모로구나.

“어머닌 살당살당 돌아가시민 머구냥<sup>207)</sup> 가시 돋은 거 박박 훑어동<sup>208)</sup> 방장대 짚영 삼년상 시무옷도 알<sup>209)</sup> 감추왕 삼년상 공 갓으쿠다. 어머님은 머구냥 방장대 삼년상 ‘아이고 데고’ 공 갓아 드리쿠다.”

“형제간덜은 나 엇이난 어떤 생각 납데가?”

“아이고, 느 엇이난 놉광 싸울 때 편역 들여줘난 생각, 맞존거 줘난 생각 그것백이<sup>210)</sup> 아니 나지.”

형제간은 옷 앞섭이 브름이라 일년 복 쓰기<sup>211)</sup> 마련헌다. 죽은각시덜은 서방 얻으멍 가불고,

“큰각시는 어떤 생각 나 지어니?”

“산 수절도 지킨거 죽은 수절 못 지키랴 앓앗우다.”

정절 부인 마련헌다. 숙절 부인 마련헌다. 기생첩 문안내 문베깃디<sup>212)</sup> 기생첩덜 어서 가라. 다 보내여두고,

말년에랑, 옛날은 각시 얻영 덩기당, 돌아덩기당 막 육십이 넘어가민 큰각시 좃아 왕<sup>213)</sup> 죽는법 마련허엿우다.

강림인 이젠,

“느영 나영 무음 낡<sup>214)</sup> 살아보게.”

그날 저녁 두 가지가 불끈<sup>215)</sup> 안앙 누원, 줌 잠시난,<sup>216)</sup> 동네에 짐서방은 소상이나

---

200) 무디무디: 마디마디.

201) 곱아저라: 말해저라.

202) 막덩이: 막대기.

203) 방장대에: 상(喪) 낫을 때 상주가 짚는 상장 막대.

204) 시무옷: 상복.

205) 가심: 가슴.

206) 굿인: 나쁜.

207) 머구냥: 머귀나무.

208) 훑어동: 모두 떨어지게 해두고.

209) 알: 아래.

210) 그것백이: 그것밖에.

211) 복 쓰기: 복(服) 입기.

212) 문베깃디: 문밖에.

213) 좃아 왕: 찾아 와서.

214) 무음 낡: 마음 놓고.

215) 불끈: 불끈.

넘건 강님이 큰각시 연영 살아보저. 대상이나 넘으민 강님이 큰각시 연영 살아보저.  
첻 식겻날꺾지 와시난<sup>217)</sup> 이젠 강님이 큰각시 연영 살아도 될거여 눈독 올려 놔두난.

강님이 큰각시 문을 아니 요난,<sup>218)</sup> 요년 쟁긴년 어뎡 문을 아니 올암신고.<sup>219)</sup> 창고  
냥<sup>220)</sup> 풀런 눈썸안 보난 두 가시가 불끈 안양 이시난,

‘아이고, 요년 쟁긴년 서방 죽엇젠 헨게, 서방 저싱 갓젠 헨게 거짓말로구나. 낮  
인 팽풍 두이<sup>221)</sup> 살림을 살고 밤인 훈 이부자리 품사랑 허멍 요년 살앗구나.’

동안 마당더레 들어갓구나. 강님이 저싱 갓젠 헨게, 그건 거짓말, 두가시(夫婦)가 짐  
잠십디텐 허난,

“소령(使令) 급장.”

이제 곱으민<sup>222)</sup> 순서들 돌양<sup>223)</sup> 포승 채완, 동안 마당더레 들어간,

“너 강님이. 저싱 강 염례대왕 잡형 오렌 허난, 너네 큰각시네 집이서 밤인 품사랑  
허고 낮인 팽풍 두이서 살림을 허염구나.”

“아닙네다. 언치낙<sup>224)</sup> 왓습네다. 모리<sup>225)</sup> 뒷날 소오시에 염례대왕 내리켄 허엿습네  
다.”

“모리 뒷날 소오시까지 방에칼 씨왕 전옥(典獄)에 하옥시기라.”

강님이 전옥에 하옥시갓구나. 모리 뒷날 소오시가 뉘난, 좁은 목에 베락치듯<sup>226)</sup> 너  
른<sup>227)</sup> 목에 빗발치듯 좁진<sup>228)</sup> 빗방울 훑은 빗방울 듚싱듚싱 베락 천둥에 동안 마당에  
염례대왕 내렸구나.

옛날은 굿 허젠 헤영. 대신맛젠<sup>229)</sup> 허민 좁진 빗방울 훑은 빗방울 와지끈당 와지끈  
당 오는 법입디다만은, 이제는 시국이 변천이 뉘난에 기영도 저영도 몰르쿠다.

동안마당 염례대왕 내리난,

“이 집은 누게 짓엇느냐?”

“강태공 소목시가(首木手) 지엇우다.”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단,

“요 지등은<sup>230)</sup> 내가 아니 세앗우다.”

대톱 소톱 싸단보난<sup>231)</sup> 즈짓피(紫芝血)가 불끗허게<sup>232)</sup> 낫구나.

216) 짐 잠시난: 짐 자고 있으니.

217) 와시난: 왔으니.

218) 요난: 여니.

219) 올암신고: 열고 있을까.

220) 창고냥: 창구멍.

221) 팽풍 두이: 팽풍 뒤에서.

222) 곱으민: 같으면.

223) 돌양: 데리고.

224) 언치낙: 어젯밤.

225) 모리: 모래.

226) 베락치듯: 벼락 치듯.

227) 너른: 넓은.

228) 좁진: 작은.

229) 대신맛젠: 대시왕맛이 허젠.

230) 지등은: 기등은.

231) 사단보난: 자르다보니.

옛날은 집 짓엉 상냥(上梁)허영, 독 야계기<sup>233</sup> 그찬<sup>234</sup> 내지드기 핏칠허기 마련헤엿  
우다. 염례대왕도 왕입네다. 인간 짐치원님도 왕입네다. 대결할 수가 잇입네다.

“어평헨 날 부릅디가?”

“청이 잇습네다. 어평헌 청입데가?”

“이 모을에<sup>235</sup> 과양생이 지집년 혼날 혼시에<sup>236</sup> 아들 삼형제 낳고, 혼날 혼시에 과  
거 뵙 오고, 혼날 혼시에 죽어부난, 그 어평헌 원인으로 죽음상을<sup>237</sup> 몰란 염례왕을  
청헤엿습네다.”

이젠,

“그년, 생긴 년. 심어오라.”

“과양생이 지집년 그 애기덜 너가 낳앗느냐?”

“낳앗습네다.”

묻은 단<sup>238</sup> 간보난, 빈 관만 잇엇구나. 동경국땅 버믈왕 아덜덜 살려두완. 이 애기  
덜 너가 낳앗느냐?

“아니 낳앗습네다.”

“이 애기덜 혼령이 든 일 아니겠느냐? 놈이 눈에 눈물 나게 허민, 니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라. 이 애기들 혼령이 든 일이로구나. 동경국 버믈왕 아덜덜은 어멍국 아방  
국으로 어서 들어가라.”

보내여 두고, 아홉 세 열 세 시멩이덜덜, 쉼머리 몰머리로<sup>239</sup> 갈리갈리 찢어<sup>240</sup> 발  
겨죽엿구나. 갈리갈리 찢어 발겨 죽이난, 둥그는<sup>241</sup> 건 보리기<sup>242</sup> 싫다. 닥닥 모산<sup>243</sup>  
산중이랑 곡다귀<sup>244</sup> 몸에 해변이랑 모기 몸에 환싱시켜 두고,

아홉세 열세 시멩이덜덜, 사름이 죽어 나걸랑.<sup>245</sup> 아홉은 귀양 일곱 신앙, 일곱 신  
앙에 아홉 귀양, 사람 죽엉 귀양풀이<sup>246</sup> 허는 법. 쉼<sup>247</sup> 죽은디 시왕풀이 허는 법. 사  
름 죽엉 귀양풀이 아니헤불민, 저싱도 이싱도 못 강 여중 감중 초군문(初軍門)에 상  
비세굴이 우는 법으로, 사름은 죽엉 귀양풀이 허여사<sup>248</sup> 저싱 열두 문 넘어가는 법으  
로, 사름은 죽엉 귀양풀이 허는 법. 쉼 죽은디 신앙풀이 허는 법. 물 빼는딘 개시신

232) 불끗허게: 피가 붉은 반점처럼 나는 모양.

233) 독 야계기: 닭 모가지.

234) 그찬: 베어서.

235) 모을에: 마을에.

236) 혼날 혼시에: 한날 한시에.

237) 죽음상을: 죽은 이유를.

238) 묻은 단: 묻은 데는.

239) 쉼머리 몰머리로: 소머리 말머리로.

240) 찢어: 찢어.

241) 둥그는: 굴러다니는.

242) 보리기: 보기.

243) 모산: 찢어서.

244) 곡다귀: 각다귀.

245) 죽어 나걸랑: 죽고 난 후에는.

246) 귀양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곳 이름. 죽은 영혼을 저승에 잘 보내는 곳.

247) 쉼: 소.

248) 허여사: 해야.

법, 석전 넘어난디 돤베시신법 큰집은 짓이민 성주허는 법 마련이 뉘엇우다. 이젠 법 지법 다 마련헤여 두언.

염례대왕이 허는 말이, 짐치원님 신디 이젠, 송서절첼 다 헤여시난 강님인 나 돌앙 저싱 가켤.

“아니 뉘네다.”

“계결랑 우리 저싱 반 이싱 반, 반씩 갈랑 허기가 어떻헉네까?”

“아니 뉘네다.”

“계결랑 짐치원님이랑 몸을 츠지허민<sup>249)</sup> 날랑 저싱 삼흔(三魂)을 츠지허기가 어떻헉 네까?”

“결랑 기영 헉서.”

경 허렌 허난, 강님이 저싱 보. 강님이 저싱 보. 강님이 저싱 보. 삼 시 번<sup>250)</sup> 불르 난 저싱 가불엇구나.

사람은 죽으민 저싱 삼 흔을 불르지 아니허민, 죽어진 중<sup>251)</sup> 살아진 중 몰랑<sup>252)</sup> 검은 구름에 뜨는 법으로. 사름은 목숨 타지민<sup>253)</sup> 옛날은 지봉상상<sup>254)</sup> 조추모루<sup>255)</sup> 올라간 훗적삼 내어 놓앙 저싱 삼흔을 불르는 법입네다.

염례대왕 혼 빵<sup>256)</sup> 저싱 가부난 강님인 죽엇구나. 강님인 죽음상 몰란,<sup>257)</sup> 둥그랭이<sup>258)</sup> 사시난 짐치원님 하는 말이,

“야, 강님이. 너 저싱 갖다 왓젠 큰양<sup>259)</sup> 험나?”

는장(稜杖)대로 밀리난 헤틀렉이<sup>260)</sup> 갈라지엇구나. 헤틀렉이 갈라지난, 코속으로 쉬포리가<sup>261)</sup> 웅허게 노난, 코속으로 쉬포리가 웅허게 놀고, 귀속으로 귀포리가 웅허게 놀고. 사름이 죽으민 코 고냥<sup>262)</sup> 막고 입 고냥 막고, 귀 고냥부터 막는 법 마련허엇우다.

큰각시신디 부고 전허난, 큰각신 놀아왕 이레탕 저레탕 누웁 둥굴멍

“아이고, 저싱 강 염례대왕님을 아니 청헉 와십데가? 어떻헉 우리 낭군 죽입데가?”

“홀 수 엇이 염례대왕이 혼 빵 저싱 가부난 홀 수가 엇저.”

홀 수 엇구나. 산디짚<sup>263)</sup> 놀어시난<sup>264)</sup> 산디짚 찌그레기 뻘,<sup>265)</sup> 머린, 쉬운데자 방패

249) 츠지허민: 차지하면.

250) 시 번: 세 번.

251) 죽어진 중: 죽었는지.

252) 몰랑: 몰라서.

253) 타지민: 떨어지면. 죽으면.

254) 지봉상상: 지봉 위.

255) 조추모루: 상마루 맨 위 꼭대기.

256) 혼 빵: 혼을 빼서.

257) 몰란: 몰라서.

258) 둥그랭이: 덩그러니.

259) 큰양: 큰척.

260) 헤틀렉이: 중심을 잃고 힘없이 뒤로 나자빠지는 꼴.

261) 쉬포리가: 쉬파리가.

262) 코 고냥: 코 구멍.

263) 산디짚: 밭벼의 짚.

264) 놀어시난: 보리를 차곡차곡 쌓은 ‘놀’이 있으니.

머리, 머리 줌아<sup>266</sup>) 메여두고, 이젠 홀 수 엇구나. 초수렴법(初襲斂法) 마련한다. 대수렴법(大襲斂法) 마련한다. 성복제(成服祭), 일포법(日哺法) 마련허엿구나. 서른대(더)명 유대권 제대권 어여낭창 염불(念佛) 불령, 무저궁전 너른 땅 북만산천 저싱 들어갈 때 세상 못어지고<sup>267</sup>) 감겨진거, 애기덜 가심에 못인 거,<sup>268</sup>) 어여낭창 어서 가자.

북만산천 들어간 석자 오치 귀광 판다.<sup>269</sup>) 하관한다. 상계판에 중계판 하계판을 뒤어간다. 달구 진다. 질토곳에 애기덜 어머니 가심에 못인 거나 아바님 가심에 못인 거나 먹장굴이 못인 거. 문<sup>270</sup>) 풀어 갑서.

돌멩이도 좃이고<sup>271</sup>). 멩게낭 뿔리도<sup>272</sup>) 좃이고, 가시낭 뿔리도 고사리 뿔리도 좃어 근 질토곳에<sup>273</sup>) 가심에 못인 거 문 풀립서 헤영 봉분 썬다.

용미제절 빠간다. 초제(初祭) 지내엇구나. 이우제(二虞祭) 삼우제(三虞祭). 집이 오란,<sup>274</sup>) 삭망(朔望) 삭제(朔祭) 초하루(初一日) 보름 석 덜 열고 졸곡(卒哭) 넘나. 열두 덜은 소기(小忌) 넘나. 스물넉 덜 대기(大忌) 넘언. 담제(禫祭) 석 덜 열흘 담제 넘으 난 봉막 벗엇구나. 일 년 혼 번 식계허고<sup>275</sup>) 멩질허고<sup>276</sup>) 팔월 초하루 소분군불 허는 법. 강님이 큰각시가 다 내운 법이우다.

인간에선 문 마련허여 두고 강님인 저싱 가난, 저싱은 가난, 동방세기 삼천년을 염 레대왕님이 잡혀오렌 허난, 다른 처서(差使)들이 잡히레 가민 어른이 뉘영 왕 보민<sup>277</sup>) 아이가 뉘어불고, 아이가 뉘영 보민 어른이 뉘어부난 잡힐 수가 엇이난, 너, 강님이 강 잡형 오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동방세기 삼천년 잡히레 내려오단 보난, 어떠헌 애기업게 허는 말이, 애기업게 눈엔 비추왔구나.<sup>278</sup>)

“강님인 저싱 갖젠 헨게 어떻헌 인간더레 노려움이파?”

동방세기 삼천년 잡히레 왓젠 허난, 동방세기 삼천년을 어떻헌 잡히쿠과? 솟이 나<sup>279</sup>) 앓아당<sup>280</sup>) 강 싯엇다 널엇다 허염십서. 알아볼 도리가 잇우덴 허난, 솟을 앓안 오란, 싯엇다 널엇다. 싯엇다 널엇다 허염시난, 동방세기 삼천년 하루<sup>281</sup>) 열두번 변식

265) 찌그레기 뻘: 못쓰는 것을 빼서.

266) 줌아: 잡아서 묶어서.

267) 못어지고: 맺어지고.

268) 못인 거: 맺힌 것.

269) 귀광 판다: 관 자리를 판다.

270) 문: 모두.

271) 좃이고: 줍고.

272) 멩게낭 뿔리도: 청미레덩굴 뿌리도.

273) 질토곳에: 길 트기 곳.

274) 오란: 와서.

275) 식계: 제사.

276) 멩질허고: 명절허고.

277) 뉘영 왕 보민: 되어서 와 보면.

278) 비추왔구나: 보였구나.

279) 솟이나: 솟이나.

280) 앓아당: 가졌다가.

281) 하루: 하루.



을<sup>282</sup>) 허여도 솟을 싯엇다 널엇다 험시난

“그 젊은이, 그 솟을 무시것 허레<sup>283</sup>) 메날<sup>284</sup>) 싯엇다 널엇다 험시니?”

허난,

이 검은 솟도 싯엄시민<sup>285</sup>) 헤영허게<sup>286</sup>) 발라지영<sup>287</sup>) 약제가 된덴 헤영 발럼수덴 허난, 검은 솟 히게<sup>288</sup>) 발리는 사람은 동방세기 삼천년을 살아도 본 도레가<sup>289</sup>) 엇덴 허난, 요거 동방세기로구나 심연<sup>290</sup>) 저싱 갖구나. 그 말로 애기 업게 말도 귀 넘어 듣지 말렌 옛어른 속담에 잇어집네다. 애기가, 처녀가 솟을 앗앙<sup>291</sup>) 싯엄시렌 허난, 싯단 보난 동방세기 삼천년 심영 저싱 간 염레대왕신디 바찌난,<sup>292</sup>) 염레대왕 허는 말이,

“과연 역력허고 똑똑헌 강님이로구나. 넌 인간처서를 마련허라.”

흔 번은 오고, 두 번은 올 수 엇엇구나. 까메기가<sup>293</sup>) 까옥 허난, 너도 강게 나도 강게 까메기 놀게에<sup>294</sup>) 적베지(赤牌紙) 붙엇구나. 츠레츠레<sup>295</sup>) 연(年) 츠레 나이 츠레 직함 츠레 벼실 츠레로 적베지 강 붙여동 오렌 허난, 경 허켄 헤연.

까메긴 포뜰포뜰 인간더레 노려오단 보난, 물피쟁이<sup>296</sup>) 물 잡암시난<sup>297</sup>), 물 피나 혼직<sup>298</sup>) 얻어먹어 보젠 까왓까왓 허여가난, 물피쟁인 물말통으로 다락허게 마치난 지<sup>299</sup>) 마침시카부덴<sup>300</sup>) 포딱허게 놀아나난 적베진 알더레 털어지엇구나. 구렁인 옴막허게 들러먹엇구나. 베염이 적베지 들러먹어 놓고 왕석(王石) 돌알더레 몸은 빈주룽허연 돌 알러레 들어가부난, 베염은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도환싱(還生), 구사십생(九死十生) 허는 법 마련이 뉘엇우다.

까메권 적베진 일러불고<sup>301</sup>) 동더레 돌아상<sup>302</sup>) 까왓 서더레도 돌아상 까왓 남더레 북더레 돌아상 까왓 까왓. 어른 올 디 아이 읍서. 아이 올 디 어른 읍서. 늑신네<sup>303</sup>) 젊은이 막론 없이 막 읍센 까옥까옥 허여두고.

---

282) 변식을: 변장을.

283) 무시것 허레: 무엇을 하려고.

284) 메날: 매일.

285) 싯엄시민: 싯고 있으면.

286) 헤영허게: 하얗게.

287) 발라지영: 바뀌어서.

288) 히게: 하얗게.

289) 도레가: 적이.

290) 심연: 잡아서.

291) 앗앙: 갖고.

292) 바찌난: 바치니.

293) 까메기가: 까마귀가.

294) 놀게에: 날개에.

295) 츠레츠레: 차례차례.

296) 물피쟁이: 말 잡는 사람.

297) 물 잡암시난: 말 잡고 있으니.

298) 혼직: 한 모금. 한 번.

299) 지: 자기.

300) 마침시카부덴: 맞히는 줄 알고.

301) 일러불고: 잃어버리고.

302) 돌아상: 돌아서서.

303) 늑신네: 늑은이.

허웅애기 감시난,

“허웅애기야, 저싱 걸라.”

“우리집 가민 할망도 있고, 하르방도 있고, 어멍 아방도 잇우다.”

“강 들어보라.”

저 허웅애기 물 질어다 된.<sup>304)</sup>

“할마님아, 저 까메기 봅서. 나신디 저싱 가렌 허염수게. 까악까악 울엄수게.”

“느가 가라. 난 나 멩(命)대로 살당 가키여.”

“하르바님아, 나 대신 저싱 갑서. 저 까메기 나 저싱 걸렌 허염수게.”

“난 나 멩대로 살당 가키여. 느 가라. 난 말다.”

“어머님 나 대신 저싱 갑서.”

“난 말다. 느 가라. 무시거옌<sup>305)</sup> 굴암시니? 느 가라. 난 말다.”

홀 수 엇저. 허웅애기 돌안 저싱은 가난, 야, 저싱 문세(文書)가 낙로가 뒹엿구나. 어른도 가고 아이도 가고, 늑신네 젊은이 막론 엇이 다 간. 저싱도가 문이 고득앗구나.<sup>306)</sup> 강님이 불러단,

“강님아, 강님아. 너 이거 어떻헌 일이냐? 츠레츠레<sup>307)</sup> 연 츠레, 나이 츠레, 직함 츠레, 벼실공명제 츠레로 강 적베지 부쳐동<sup>308)</sup> 오렌 허난, 어른도 오고, 아이도 오고, 늑신네 젊은이 막론엇이 막 오난, 어떻게엇느냐?”

예, 가당 저싱광<sup>309)</sup> 이싱 질은 삼천칠백리 질 머나먼 질이난 까메기가 까옥 허난, 너도 강계 나도 강계, 까메기 젓늘게에<sup>310)</sup> 적베지 부쳐우덴 허난, 까메기 돌아단,

“어떻 허엇느냐?”

“적베지 일러부난,<sup>311)</sup> 아이도 읍서. 어른도 읍서. 늑신네 젊은이 막론엇이 막 읍서 까옥까옥 허엇우다.”

허난, 히영헌 까메기 메 하도 두드려부난<sup>312)</sup> 거멍헌<sup>313)</sup> 독 올란, 까메긴 거멍 허고, 까메기 궤기도<sup>314)</sup> 거멍 허고, 몸덩이도<sup>315)</sup> 거멍 허고.

까메긴 메 보짝 얻어 맞고 인간더레 노려오단 보난, 그때사 막덩이 짚은 할망 물허벽 지영 걸엄시난,

‘아이고, 처음 올 때 저 할망 나타냥 돌양 가비어시민<sup>316)</sup> 메나 아니 맞으컬.’

뒤로 돌려들언<sup>317)</sup> 뒤테가리 좇이난,<sup>318)</sup> 할망은 헤틀렉이 갈라지난 물허벽은 바싹허

304) 질어다 된: 길어다 두고.

305) 무시거옌: 뭐라고.

306) 고득앗구나: 가득했구나.

307) 츠레츠레: 차례차례.

308) 부쳐동: 붙이고.

309) 가당 저싱광: 가다가 저승과.

310) 젓늘게에: 날개에.

311) 일러부난: 잃어버리니.

312) 두드려부난: 때려버리니.

313) 거멍헌: 까만.

314) 궤기도: 고기도.

315) 몸덩이도: 몸도.

316) 돌양 가비어시민: 데려 가버렸으면.

게 별리지었구나. 그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영 가민, 방 치웁센 허영, 방 안네 오랑 관 나가젠 허민 창문으론 관 나강, 와쌍바쌍 사기주적<sup>319)</sup> 살성(殺聲) 도리고 몽덕불 피완 살았구나. 오곡(五穀)씨 먹영 살았구나. 몽덕불 화리에 불 피와놓고 곡석 좁아 놓<sup>320)</sup> 방안 소독허는 법 마련이 뒤엿우다. 그 법으로 까메기가 처서가 뒤영 상(上) 가지에<sup>321)</sup> 앓앙 들어가민, 상가지 즈순이 꺾여가고, 중(中)가지 즈순이 앓아가민, 중 가지 즈순이 꺾여가고, 하(下)가지에 앓앙 들어가민, 하가지 즈순이 꺾여가고, 헤 까메긴<sup>322)</sup> 싸움나고 살인 나고, 밤 까메긴 화덕진군(火德津軍) 나고 해 까메긴 살인이 나는 법 마련 헤엿우다. 이제도 까메기 각각 들어가민 처서가 들어샷젠 허영, 까메기 들어가민 동네에 영장(喪)이 나는 법 마련헤엿우다. 영혼 영신 돌양 강<sup>323)</sup> 삼처서 관장님 손에 수갑 풀립서. 발에 사줄 풀립서. 목 죽은 행처칼, 저싱 용두머리 다 풀려줍센 헤영,

이석굿도 삼년 날일, 장석굿도 삼년 날일, 부모 초상(初喪) 입어근 오랑 가는 즈순 델 울고 불고 혈 일, 처서님 굽어볼 일 문<sup>324)</sup> 막아줍서. 오랑 가는 즈순델 불선 뭍은 질<sup>325)</sup> 문 닦아줍센 헤연, 삼처서 관장님 앞살 일<sup>326)</sup> 문 막아줍서. 처서님 난수생 신 풀엇습네다.

---

317) 돌려들언: 달려들어서.  
 318) 좃이난: 룩 찍으니.  
 319) 사기주적: 사기 접시.  
 320) 좁아 놓앙: 집어 놓아서.  
 321) 상가지에: 높은 나뭇가지에.  
 322) 헤 까메긴: 낮에 우는 까마귀.  
 323) 돌양 강: 데려 가서.  
 324) 문: 모두.  
 325) 뭍은 질: 맑은 길.  
 326) 앞살 일: 앞에 세울 일.